

# 『經濟論集』의 編輯原則과 執筆

鄭 基 俊<sup>(1)</sup>

이 글은 서울大學校 經濟研究所가 발족 30년을 맞아, 『經濟論集』의 體裁와 編輯原則을 개정하면서 『經濟論集』의 독자와 저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새로운 편집의 과정과 원칙을 설명하기 위하여 쓴 글이다. 이 글에서는 잠재적인 著者들에게 여러 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이 글 자체는 이러한 要求事項을 충족하는 一例를 제공하도록 작성되어 있다.

## 1. 머 리 말

서울大學校 經濟研究所가 발족한지 30년이 되었다. 그리고 同研究所가 발행하고 있는 季刊 學術誌 『經濟論集』은 이제 30卷을 헤아리게 되었다. 『經濟論集』 編輯委員會에서는 1991년도 『經濟論集』 第30卷의 편집·발행을 기하여 『經濟論集』의 체재와 편집원칙을 改正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이 새로운 編輯原則을 독자와 집필자에게 알려드림으로써, 집필자, 독자, 편집자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서로 불필요한 시간과 정력의 낭비를 막으려는 데 目的이 있다.

## 2. 原稿의 準備

『經濟論集』에 게재되는 논문의 主題에는 어떤 엄격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經濟論集』의 독자는 관심분야가 다양한 經濟學者 및 研究者들임을 감안하여, 그 논문이 어떤 問題를 다루고 있고 그 結果가 왜 중요한지를 그 방면에 정통하고 있지 않은 이라도 알 수 있게 準備될 필요가 있다.

『經濟論集』에 투고될 原稿는 높은 科學的 標準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 원고는 새로운 內容을 담고 있는 것이어야 하며, 價値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야 하며, 내용이 옳은 것이어야 한다. 또, 意思傳達形式이 세련되어야 한다. 즉 結果의 內容을 잘 傳達할 수 있어야 하며, 重要性을 부각시킬 수 있어야 하며, 관련된 다른 文獻들과의 關係를 보여야

(1) 이 글의 준비에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준 李性輝 教授께 감사한다.

한다.

글은 段階를 밟아서 展開되어야 한다. 글의 첫머리에서 대뜸 用語의 定義를 내리는 등의 일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序論에서는 극히 제한된 분야에서만 통하는 專門用語라든지 數式은 피하는 것이 좋다. 표현은 簡潔하고 明瞭해야 한다. 고도의 抽象的 이론분석을 다루는 論文을 쓰려는 분은, 『經濟論集』의 독자 중에는 응용 쪽에 주로 관심을 가진 분들도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 마찬가지로 應用分野의 논문을 쓰려는 분은 그 論文이 다루는 제도적 측면을 잘 알지 못하는 讀者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專門分野에 대한 논문을 쓴다는 것은 매우 보람있는 일이다. 이 일은 (1) 文法的으로 잘못이 없고 표현하고자 하는 생각을 정확하게 傳達하는 作業과, (2) 자기의 생각을 최대의 明瞭性을 가지고 나타낼 수 있을 때까지 論文을 반복해서 推敲하는 作業을 포함한다. 원고를 작성함에 있어서 이 두 作業이 결합된 논문은, 그 논문이 찾아낸 理論的 결과와 經驗的 사실에 대해서 당연히 올바른 評價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經濟論集』의 편집자의 의견으로는 원고를 집필하는 분들은 다음 두 가지에 유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첫째, 辭典이다. 자기의 생각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 單語의 정확한 뜻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둘째, 文法이다. 설명의 明確性을 기하는 데는 文章記號와 文法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文法的인 過誤를 피하고 올바른 기호를 골라 쓰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第一步에 불과하다. 좋은 글을 쓰려면 그 이상의 것, 즉 위의 (2)에서 강조한 글을 다듬는 努力이 필요하다. Flanders(1971)의 말을 인용해 보자.

좋은 글을 쓰려면 潛在的인 讀者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끊임없는 努力이 필요하며, 숙련, 자기비판, 그리고 무엇보다도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 논문을 끝내고 타자된 原稿가 작성된 이후에 여러분은 單語마다, 文章마다, 句마다, 節마다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한다. 順序는 옳은지, 왜 이 單語를 골랐는지, 불필요한 말은 없는지, 더 明瞭하게 설명할 方法은 없는지 등에 관하여.

글은 명쾌해야 한다. 초벌原稿에 결코 만족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위에 언급한대로, 『經濟論集』의 독자의 관심분야가 다양하다는 사실에 留意하여 논문의 結果의 중요성을 주의 기울여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 논문의 內容이 좋은 글로 表現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런 이유에서도 중요하다. 논문이 너무 數學的이라거나 너무 專門的이라는 이유 때문에 『經濟論集』에 실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經濟論集』이 독자들에게 사랑받는 學術誌로

되려면, 실린 논문들은 專攻을 달리하는 사람이라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 찾아낸 결과와 왜 중요한지 등을 알 수 있게 쓰여져야 할 것이다. 쓰여진 논문이 이런 要件을 갖추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은, 完成된 原稿를 전공이 같지 않은 다른 동료에게 주어 그의 論評을 들어보는 것이다. 그 논평은 잠재적인 異質的 讀者들이 접하게 될 이해·오해의 문제를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해줄 것이다.

### 3. 寄稿와 處理

모든 원고는 『經濟論集』 編輯委員長 앞으로 보낸다. (편집위원회의 구성은 『經濟論集』의 표지 뒷면에 나와 있다.) 『經濟論集』의 편집위원회는 워드프로세서로 作成된 원고를 선호한다. 제출되는 원고에는 著者(및 共著者)의 간단한 인적사항, 연락처, 전화번호, 팩시밀리번호 등이 添附될 것으로 기대한다.

원고를 받으면 編輯委員長은 저자에게 접수사실과 처리계획을 通報한다. 제출되는 原稿는 다른 학술지에 投稿된 일도 투고될 계획도 없는 것으로 보며, 제출된 뒤에 狀況의 變更이 있으면 저자는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이 사실을 알릴 義務가 있다.

#### 3.1. 審 査

正常的인 상황에서, 제출된 원고의 審査는 제출 후 3個月 以內에 끝난다. 제출된 논문은 즉시 전공분야의 선정된 審査委員 2인에게 보내져서 심사된다. 논문의 採擇與否는 심사보고서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修正指示를 따르는 것은 저자의 의무이다. 그러나 심사에 異議가 있을 때는 書面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3.2. 採擇與否

投稿된 원고는 採擇되거나, 修正이 요구되거나, 拒否된다. 원고가 채택되면 이는 편집위원회에 회부되어 掲載日程이 결정된다. 그리고 나서 暫定的인 일정계획과 필요한 補完要求가 저자에게 통보된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 擔當助教는 인쇄상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을 원고에 표시한다. 이때 文法上的 오류가 修正되며, 기호사용·참고문헌 등의 形式上的 一貫性이 점검된다. 그리고 活字의 크기와 종류, 간격, 표와 그림의 位置 등이 指示된다. 원고가 인쇄소로 넘어가기 전에 편집위원회 幹事는 最終點檢을 하고, 사소한 의문점은 원고의 맨 앞에 메모해 두었다가 교정단계에서 著者에게 確認을 받는다.

일단 인쇄소로 넘어간 원고는 조판되어서, 校正刷가 2부 작성된다. 그 중 한 부는 간사

에게, 한 부는 직접 저자에게 넘겨진다. 著者에게는 校正刷와 함께 의문점에 대한 說明要請書, 別刷注文要請書 서식이 보내진다. (별도의 주문이 없는 경우 別刷部數는 30부이다.) 저자는 의문사항에 대한 답과 별쇄요청서를 작성하여 이들을 수정된 교정쇄와 함께 期日內에 간사에게 返送해야 한다.

幹事は 반송된 모든 校正刷를 모아 철저한 검토를 거쳐 잘못이 없음을 확인한 뒤에, 이를 한꺼번에 인쇄소로 넘긴다. 이는 인쇄소의 慣行에 따라서 『經濟論集』으로 발행되며, 別刷는 저자에게 직접 發送된다.

#### 4. 原稿作成要領

編輯委員長에게 제출되는 最終原稿는 고급표준용지에 2배 간격으로 作成되어야 하며 가장자리에는 충분한 여백을 남겨야 한다.

##### 4.1. 題目, 著者名, 頭註

題目은 중심정렬로 한다. 題目 중에 “……에 관한 연구”, “……에 관한 일고찰” 등의 表現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피하는 것이 좋다. 著者名은 제목 바로 아래에 중심정렬하여 插入한다. 研究노트를 제외한 모든 論文에는 저자명 바로 아래에 1개 문단 400字 정도의 길이로 論文의 性格을 간단히 說明하는 頭註(headnote)를 넣는다. 頭註는 문단형식으로 하며, 좌우 모두 2字 폭만큼 들여 적는다.

##### 4.2. 脚註

脚註는 논문 전체를 통하여 일련번호를 붙인다. 첫번째 脚註가 論文 전체에 관련된 것일 때는 題目의 오른쪽 어깨에 “(1)”을 붙이고, 著者에 관한 것 또는 謝辭일 때는 著者名의 어깨에 붙인다. (저자의 소속, 주소는 脚註로 처리하지 않고 本文의 끝에 넣는다.) 脚註의 번호는 괄호 속의 아라비아숫자로 어깨에, 문장부호의 뒤에 붙인다. 인쇄될 때 모든 脚註는 해당 페이지의 아래에 오게 되지만, 原稿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모든 脚註는 번호 순으로 2배 간격으로 작성하여 參考文獻의 뒤에 別添한다.

##### 4.3. 本文

本文이 여러 개의 節로 나누어질 때 각 節의 제목은 로마숫자의 번호를 붙여서 중심정렬한다. 小節로 나눌 때 각 小節의 번호는 아라비아숫자를 붙여서 좌측정렬한다.

本文 중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밑줄을 쳐서 나타낸다. 數式은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本文의 行 속에서 처리한다. 이 경우 分數는 “(a+b)/(c+d)”와 같이 나타낸다. “a/b+c”

와 같은 表現은 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피하고 이를 “ $(a/b)+c$ ” 또는 “ $a/(b+c)$ ”로 나타낸다. 복잡한 數式은 別途의 行으로 하여 들여짚는다. 別行의 수식에 式의 번호를 붙일 때에는 “(2.3)”과 같이 第2節의 세번째 식임을 나타내는 番號를 좌측정렬하여 挿入한다. 別行으로 나타낸 式의 指標의 範圍를 나타낼 때는 “ $(i=1, 2, \dots, n)$ ”처럼 괄호로 묶어 우측정렬한다. 別行의 數式에는 설명을 위한 문자를 포함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記號를 따로 설명할 때에는 수학기호를 섞지 않는다.

#### 4.4. 著者紹介 및 附錄

著者の 所屬과 住所는 본문의 말미에 아래 例와 같이 나타낸다. 즉

151-742 서울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학교 經濟學科 副教授  
 전화 : (02)880-6380  
 팩시 : (02)888-4454

附錄이 있는 경우, 이는 저자소개 뒤에 온다. “附錄”이란 題目은 중앙정렬한다. 부록이 複數인 경우에는 “附錄 1”, “附錄 2” 등으로 한다.

#### 4.5. 參考文獻

參考文獻은 題目을 “參考文獻”이라고 중심정렬한 다음, 東洋語文獻은 著者名의 가나다 順, 西洋語文獻은 알파벳 順으로 배열한다.(中國人, 日本人 저자의 경우에도 배열은 著者 漢字名의 한국어음에 따라 配列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東西洋語文獻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東洋語文獻을 먼저 일괄배열하고 나서 西洋語文獻을 배열한다. 參考文獻의 표시는 다음 요령에 따른다.

##### 1) 東洋語文獻

論文의 경우 : 다음 例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자명에 이어서 페이지 말고 괄호 안에 연도를 넣고 콜론을 찍는다. 예고 큰따옴표(“ ”) 속에 논문명을 넣고 콤마를 찍는다. 예고 논문집발행기관을 적고 쉼 다음 겹낫표(『 』) 속에 논문집명을 넣고 쉼 다음 卷번호, 피리어드, 號번호, 콤마를 찍는다. 예고 논문의 첫 페이지 번호, 하이픈, 끝 페이지 번호, 피리어드로 끝을 낸다. 表示가 두 行 이상일 때는 둘째 行부터 왼쪽에 세 칸을 쉼다.(이하 동일.)

例 :

吳萬植(1988) : “우리나라 海外資源開發輸入의 現況分析 및 對策”, 서울大學校 經濟研究所 『經濟論集』 27. 3, 227-279.

책의 경우 : 다음 例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자명 다음에, 페이지 말고 괄호 안에 연도를 넣

고 콜론을 찍는다. 떼고 겹낫표 속에 書名을 넣고 콤마를 찍는다. 필요하면 콤마를 찍기 전에 떼고 “第2版” 등 版의 표시를 넣는다. 떼고 발행지, 떼고 출판사, 피리어드로 끝낸다. 例 :

林元澤(1988) : 『政治經濟學의 哲學的 基礎』, 서울 法文社.

## 2) 西洋語文獻

論文的 경우 : 다음 例에서 보는 바와 같이, 著者名 다음에, 떼지 말고 괄호 안에 연도를 넣고 콜론을 찍는다. 떼고 큰따옴표 속에 논문명을 넣고, 콤마를 찍는다. 떼고 이탤릭체로 논문집명, 콤마를 찍는다. (논문집명은 이탤릭체 대신에 밑줄을 칠 수도 있다. 이하 동일.) 떼고 다음 卷번호, 피리어드, 號번호, 콤마를 찍는다. 떼고 논문의 첫 페이지 번호, 하이픈, 끝 페이지 번호, 피리어드로 끝을 낸다. 저자명의 표시는 위의 예에 따른다. 例 :

Freixas, X., and A. Mas-Colell(1987): “Engel Curves Leading to the Weak Axiom in the Aggregate,” *Econometrica*, 55.3, 515-531.

책의 경우 : 다음 例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자명에 이어서 떼지 말고 괄호 안에 연도를 넣고 콜론을 찍는다. 떼고 이탤릭체로 書名과 콤마를 찍는다. 이어서 필요하면 版의 표시를 넣는다. 다음은 발행지, 출판사를 적어서 끝낸다. 例 :

Takayama, A.(1985): *Mathematical Economics*, 2nd e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參考文獻의 目錄은 논문 속에서 실제로 인용된 것만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참고문헌의 引用表示는 著者名과 年度로 한다. 例 : “예컨대 林元澤(1988, pp.306-307)을 참고하기 바란다. 그리고 ……”; “Freixas and Mas-Colell(1987)에 의하면 ……” 등.

## 4.6. 表와 그림

表와 그림은 본문 속에 두지 말고 原稿의 末尾에 몰아 놓는다. 다만 들어가야 할 位置의 表示를 정확히 한다. 表는 “〈表 1〉國民所得”의 構成과 같은 形式으로 중앙정렬한 제목을 표의 위에 붙인다. 표의 가로줄은 맨 윗줄만 겹으로 하고 나머지는 홀으로 한다. 세로줄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한다.

그림은 “〈그림 1〉物價變動率의 推移”와 같은 形式으로 중앙정렬한 제목을 그림의 아래에 붙인다. 저자는 그대로 사진을 찍어 쓸 수 있는 完璧한 그림원고를 마련할 의무가 있다. 그림 속의 文字 및 記號 중 活字로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別紙에 모아서 찍는다.

## 5. 結 論

이 글은 『經濟論集』의 독자와 저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새로운 編輯의 過程과 原則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는 潜在的인 著者들에게 여러 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經濟論集』이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좋은 논문집이 되게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經濟論集』의 編輯에 관계하는 우리는 이 論集에 높은 수준의 논문이 많이 投稿되어 30년간 連綿히 이어내려 온 이 學術誌가 質的으로 향상되어 우리가 하는 일이 더욱 보람있는 일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 글이 저자들의 질 높은 論文作成意慾을 고취하고 독자들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經濟論集』이 생산되는 데 一助가 되기를 바란다.

서울大學校 經濟學科 教授  
151-742 서울 관악구 신림동  
전화 : (02)880-6370  
팩시 : (02)888-4454

## 參 考 文 獻

- 吳萬植(1988): “우리나라 海外資源開發輸入의 現況分析 및 對策”, 서울大學校 經濟研究所 『經濟論集』 27. 3, 227-279.
- 林元澤(1988): 『政治經濟學의 哲學的 基礎』, 서울 法文社.
- Flanders, H. (1971): “Manual for Monthly Authors,” *American Mathematical Monthly*, 78. 1.
- Freixas, X., and A. Mas-Colell(1987): “Engel Curves Leading to the Weak Axiom in the Aggregate,” *Econometrica*, 55. 3, 515-531.
- Sonnenschein, H., and D. Hodges(1980): “Manual for Econometrica Authors,” *Econometrica*, 48. 5, 1073-1082.
- Takayama, A. (1985): *Mathematical Economics*, 2nd e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